

창세기 아홉번째 메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졌다.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된 창세기 12-15장까지 읽어 보아도 그가 특별히 믿음을 인정 받을 만한 기록한 행동을 한것도 없다. 후에 귀중하게 얻은 아들 ‘이삭’ 을 제물로 바치는 것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그는 오히려 ‘거짓’ 을 말하며 믿음을 없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 하셨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이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라고 질문하며 의심했다(창 15:8). 하나님께서 환상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고 까지 격려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곧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15:2)라고하며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다. 그런 아브라함이 무엇이 대단해서 그의 믿음이 의롭다 함을 인정 받을 정도였을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때 그대로 준행하여 방주를 지었다. 그것이 과연 노아의 믿음이라고 인정 받을 것일까? 당신은 알고있는가? 노아는 방주 짓기전에도 ‘의인’이었다. 그리고 ‘완전한 자’였다(창 6:9). 방주를 지었다고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 받은 것은 아니다. 노아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다(6:9).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다. 하나의 사건을 믿었다는 것이 믿음이 되는것이 아니다. 또는 나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것도 아니다. 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고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서 믿음이 되는것이 아니다. 그렇게 수없이 고백하고 시인해도 믿음 없이 살아 가는 사람들 많다. 또한 기록한 행동과 진실한 마음을 갖는다고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닌거다.

그러면 ‘믿음’ 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당신이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당신은 믿는가? 사람들은 흔히 ‘믿음’ 에 관해서 말할때 대부분 ‘십자가’ 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짝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닐지라도 믿음은 십자가 사건 그 이상의 것이다. 만약 당신의 믿음이 십자

가 사건에만 머문다면 그 믿음은 결코 자라지 못한다. 그 이유는 십자가만을 믿는 신앙은 십자가를 통해 바랄수 있는 사랑과 용서에 치중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랑과 용서의 바람은 반복된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나의 출생이전부터 나를 계획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서 살면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 내 숨쉬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것이 정말 믿음이다. 십자가 사건은 나와 평생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의 일부분에 속한다. 나에게 믿음을 갖게한 그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동행의 일부분에 속할뿐이다.

보라!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르' 였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땅에서 그는 태어났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테라' 와 동행했고 그 할아버지 '나홀' 과 동행했다. 그동행은 '노아'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방인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도 그와 동행하셨다. 하나님이 노아와 아브라함과 동행 하셨듯이 당신과 나와 동행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그것이 믿음이요 의로운 믿음이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에관해서 밝힌 것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라고 했다(히 11:1) 당신이 바라는 실상이 무엇인가?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당신과 내가 바래야 할 실상은 나와 평생을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닌가? 당신이 정말 보아야 할 증거는 매일 일상속에서 나의 곁에서 동행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것 아닌가? 매일 순간 순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 보는 것이 정말 믿음이다. 아멘!